

자기 주도적 학습자 양성을 위한 영어학습전략 교수 모형 연구: 중학교 영어교과서를 중심으로*

이경량, 김수연, 김슬기, 이윤정[†]

세종대학교

Lee, Kyoung Rang, Kim, Soo-Yoon, Kim, Seul-Gi, & Lee, Yun-Jung. (2011). English language learning strategy instruction in Korean English textbooks for middle school students' self-regulated learning. *Modern English Education*, 12(1), 177-201.

This study was planned to examine whether Korean middle school English textbooks include strategy instruction and if so, what strategies are covered as well as how to teach them. Learning strategy is considered as an essential factor of self-regulated learning in such a standardized test as the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 This study also aimed to propose a strategy teaching model to promote middle school students' self-regulated learning. We developed the coding scheme with 19 English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in a thoroughly planned way, with which we analyzed 59 textbooks: 25 for the first graders, 19 for the second graders, and 15 for the third graders. Only a few strategies were included with explicit names and/or explanations while most strategies were implicitly introduced. Before-reading strategies and before-listening strategies were covered more than the other types of strategies. Textbooks for the second graders included significantly less kinds of strategies less often than those for the first and third graders. Based on the results, we proposed a strategy teaching model for each grader with before-, during-, and after-reading strategies.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teachers with practical information of what strategies to teach and how to teach them. Detailed results and discussions are given, as are implications for English teachers and further potential research directions.

[자기 주도적 영어 학습자/영어 교과서/영어학습전략 교수/self-regulated learning/English textbook/English learning strategy instruction]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32-B00431).

[†] 이경량: 주저자/교신저자; 김수연, 김슬기, 이윤정: 공동저자(가나다순).

I. 서론

최근 몇 년간의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 결과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은 꾸준히 높은 학업 성취도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의 미래가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2010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읽기와 수학은 1위, 과학은 3위를 기록하여 최고의 수준이지만(안석배, 2010), 학습전략을 포함한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은 최하위권이고(한국학습클리닉센터, 2007), 영어 공인 시험(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IELTS) 주관사가 실시한 연구에서도 우리나라 학생들의 ‘공부 효율’은 세계 48위로(이정환, 2009) 매우 낮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영향으로 최근 영어 교육 분야에서는 효과적인 영어 학습을 위해 학생이 자기 주도적인 학습(self-regulated learning)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렇다면 자기 주도적 영어 학습자에게 필요한 자질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학습동기, 언어적성, 학습스타일, 학습전략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필요하겠지만, 대부분이 학습자의 심리적, 인지적 내부 활동으로 관찰이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 등에서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의 지표로 측정되는 영어학습전략을 살펴보기로 하였다. 학습전략은 다른 것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관찰이 가능한 ‘행동’이며(Macaro, 2001; Oxford, 1990; Rubin, 1975), 일부 학자들은 자기조절(self-regulation)과 동의어로 다루기도 한다(Cohen, 2007). 영어학습전략에 대한 연구자들은 영어학습전략의 종류, 측정 방법, 교수 방법 등에 대해서는 통일된 이론을 수립하지는 못했지만, 학생들이 주어진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어떤 학습전략을 써야 하는지 스스로 고르지(self-management) 않고서는 학습 성취를 이룰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Gu, 2003; Oxford, Cho, Leung, & Kim, 2004; Rubin, 2005). 다시 말해, 본인의 학습을 주도해 나가는 영어 학습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어진 과제에 어떤 영어학습전략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등에 대한 지식이 필수 불가결하다.

자기 주도적 학습자 양성은 새로운 화두가 아니라 제7차 영어과 교육과정과, 거듭된 개정 후 2008년에 발표된 개정교육과정에서도 일관되게 표명되고 있는 목표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그러므로, 이러한 목표에 기초하여 제작되어,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영어 교과서에서는 영어학습전략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우선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Anderson(2005)이 강조했듯이, 학습전략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학습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학습전략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교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영어 교사가 기본으로 교수하는 자료는 영어 교과서이므로, 영어 교과서에서 전략에 대해 명시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면, 교사 역시 이를 가르치기 위해 언급을 할 것이고, 이에 영향을 받은 학생들은 전략에 대해 더 잘 인식(awareness)하게 될 것이다. 전략에 대한 인식 향상의 전략 이용에 대한 중요성은 기존 연구에서 보여지고 있다. 대다수의 기존 연구에서 전략에 대한 인식 향상은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위인지전략 및 인지전략의 이용을 유발하며, 두 부류의 전략 항목들은 자기 주도적인 학습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전략임을 보여주고 있다(Cohen & Macaro, 2007; Kyoung-Rang Lee, 2007; Lee & Oxford, 2008; O'Malley & Chamot, 1990; Oxford et al., 2004).

학습전략 교수에 대해서는 기존 교과과정에 편입하여 가르쳐야 하는지, 전략을 교수하기 위한 별도의 과목이 필요한지, 그리고 명시적으로 가르쳐야 하는지, 다른 교재에 암묵적으로 포함시켜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일관된 지침이 마련되지는 않았지만(O'Malley & Chamot, 1990), 최근 학습전략에 이름을 부여(naming)하고 시범을 보이면서(modeling) 최대한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다(Rubin, Chamot, Harris, & Anderson, 2007).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교과서 검인정 본심사에서 합격한 중학교 영어 교과서에서 영어학습전략을 가르치고 있는지, 가르치고 있다면 어떤 전략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한 후, 자기 주도적 학습자 양성을 위한 영어학습전략 교수 모형을 제안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본 연구의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 중학교 영어 교과서에서는 영어학습전략을 가르치고 있는가?
그렇다면 어떤 영어학습전략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2. 학년별로 가르치는 영어학습전략의 종류와 방법에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최근 영어 교과서 제작의 근간이 되는 개정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초·중등학교에서의 영어 시간 운영은 학생 개개인의 학습 능력 차이를 고려하여야 하며, 학교 사정을 감안하여 수준별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수업에서는 과제 혹은 활동 중심의 수업 운영으로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p. 10)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자기 주도적인 학습’은 일부 학자들이 학습전략과 동의어로 언급할 정도로 학습전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Cohen, 2007). 학습전략은 원래 교사나 다른 전문가의 도움이 없이도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습자 본인이 선택하여 이용하는 의식적 행동(Griffiths, 2008; Oxford, 1990)이므로,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학습을 진행하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또한 요즘에는 학습전략 연구자들이 전략의 특성상 집단보다는 개개인의 전략 인식

및 이용에 대한 관심으로 개별화된 전략 교수의 효과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므로(Kyoung-Rang Lee, 2010) 교육과정에서 밝힌 ‘학생 개개인의 학습 능력 차이를 고려’한 수업이 가능하도록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자기 주도적 학습에 필수적인 학습전략은 사람이 걷는 것과 같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읽기’를 배우듯이 배워야 한다고 한다(Palincsar & Perry, 1995). 물론 학습자들은 이미 전략이라 부를 수 있을만한 행동을 할 수 있지만, 단순히 전략을 이용할 줄 아는 것만으로는 주어진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를 안다고 할 수는 없다. 실제로 영어 학습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의 전략 이용 정도를 분석해 본 결과,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만큼 많은 전략을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이는 그 전략들을 목적에 맞도록 스스로 선별하여 이용했다기 보다는 할 수 있는 전략을 이것저것 해 보거나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무작정 따라 했기 때문에 학습 성취에 별다른 효과 없이 오히려 방해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Nyikos, 1991; Williams, 1993). 따라서 학습전략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는 하였지만,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는 아직도 논란 중이다.

학습전략을 가르칠 때는 전략 인식 정도를 향상시키도록 도와주며 기존 내용에 포함하여 암묵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있지만(Fountas & Pinnell, 1996; Griffiths, 2003), 대다수의 학자들은 명확하고 직접적인 설명과 함께 교사가 시범을 보이며 명시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한다(Cohen, 1998; Graham & Harris, 2000; O'Malley & Chamot, 1990; Oxford & Leaver, 1996). 학습자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영어학습전략을 추상적이고 어려운 개념이라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가르치고 있는 전략의 이름이 무엇인지 명시적으로 언급하여 전략의 구체성을 강조해야 한다(Rubin et al., 2007).

학습전략을 명시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여러 학자들이 교수 모형을 제시하였고, 그 중에서 인지학문적 언어학습법(Cognitive Academic Language Learning Approach (CALLA), Chamot & O'Malley, 1994)이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인지학문적 언어학습법에서는 인지심리학에 기초하여, 영어로 과학 등 내용을 가르침으로써 학문적 영어 학습을 도모하고, 상위인지 및 인지전략을 강조하는 5단계의 명시적 영어학습전략 교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교사가 학습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전략에 대해 기존 지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계(preparation), 특정 과제에 도움이 되는 전략을 명시적 설명과 함께 시범을 보이는 단계(presentation), 학생들이 그 전략을 연습할 때 교사가 피드백을 제시하며 유도하는 단계(practice), 학생들이 해당 전략의 효용성을 평가하는 단계(evaluation), 학생들이 새로운 과제에 해당 전략을 이용하며 필요할 때 독자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확장된 단계(expansion)로 이루어진다. 이 때, 각 단계를 거치며 교사의 역할은 줄어들고, 점점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전략 이용과 평가 및 확장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방법을

이용하여 실제로 전략 교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비교한 결과, 전략 교수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성취도가 높았다고 한다(O'Malley & Chamot, 1990).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수행된 후속 연구에서도 영어학습전략 교수의 긍정적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Ikeda & Takeuchi, 2003; Kyoung-Rang Lee, 2007; Vandergrift, 2003). Carrier(2003)는 학습전략 수업을 받은 외국어 학습자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영어 듣기 시험에서의 수행이 향상된 것을 보았고, Dadour & Robbins(1996)는 말하기 전략 교수의 효용성을 강조했다. 또한 Ikeda와 Takeuchi(2003)은 일본인 영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명시적이고 집중적인 전략 교수를 실시한 결과, 학생들의 전략 이용 정도와 영어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보여 주었다.

기존 학습전략 교수 관련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학생들이 학습전략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명시적으로 이름을 부여하며 시범을 보여 가르쳐, 주어진 과제를 완수하기 위하여 어떤 전략을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 스스로 선택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이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자 양성을 추구하는 우리나라 영어 개정교육과정의 기본 목표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개정교육과정에 기초한 현재 중학교 영어 교과서에서 어떻게 학습전략을 교수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영어 교과서를 분석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어휘와 문장 길이 등을 이용한 난이도 비교(김정렬, 천윤희, 2008), 어휘 빈도, 읽기 난이도, 통사적 복잡성 등 비교(전문기, 임인재, 2009), 학습활동책 분석(이소영, 2009; 최숙현, 이희경, 2010), 읽기 활동 분석(나경희, 송희심, 2010)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 중 중학교 영어 교과서 전체를 대상으로 학습전략을 분석한 것은 없었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중학교 영어 교과서

본 연구는 영어학습전략 교수 여부 및 방법을 파악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 중학교 영어 교과서를 설정하였다. 현재 중학교 세 개 학년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교과서를 비교하였으며, 각 학년의 학습활동책은 주교재로 수업 시간에 활용되는 교과서와는 달리, 수업의 부교재로서 선택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학년별 분석 대상 영어 교과서 수는 표 1과 같다.

표 1
비교 대상 중학교 영어 교과서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합
교과서 수	25	19	15	59

2. 자료 분석 절차

중학교 김인정 영어 교과서를 수집한 후, 연구원 세 명과 함께 자료 분석 계획을 수립하였다. 총 59권의 영어 교과서(표 1)를 훑어 본 결과, 각 권의 모든 장이 일관된 구조를 보이고 있어, 각 권 세 개의 과(총 12과의 책에서는 1과, 6과, 12과, 총 10과의 책에서는 1과, 5과, 10과)를 선정하여 분석하기로 하였다. 중학교 1학년 책을 가장 먼저 분석한 후, 2학년 책, 3학년 책의 순서로 분석하였다.

영어 교과서는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문법, 어휘의 모든 영역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 모든 분야에서 쓰이는 영어학습전략에 대한 기존의 표준목록(coding scheme)을 찾기는 거의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영어학습전략 분석을 위한 표준목록을 근거 이론 접근법(grounded theory approach)에 기초하여 대상 교과서에서 가능한 학습전략 목록을 확장해가며 완성하였다. 내용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세 명의 연구원과 함께 토론을 거듭하였다. 우선 연구원 개개인이 각 교과서에서 학습전략에 해당되는 내용을 찾고, 이를 세 명의 연구원이 함께 비교 토론하여 적합성 여부를 판단한 후, 제1저자와 함께 다시 확인하며 확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로 인해 결정된 표준목록에는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총 19가지의 영어학습전략이 포함되었다. 이 때 각 교과서에서 내용 교수를 위한 질문이나 지시문을 위주로 분석하였으며, 주어진 형성평가 문제 및 종합평가 문제는 제외하였다. 분석 대상인 질문이나 지시문이 영어학습전략임이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와 암묵적으로 유도하는 경우 모두 포함하여 목록을 완성하였다.

표 2
영어학습전략 분석 표준목록

	영어학습전략	해당 내용	교과서에서 찾은 지시문 예
주 로 전 활 동 으 로 제 시	배경지식 활성화하기 (activating prior knowledge)	주어진 주제나 내용에 대해 학습자가 알고 있는 것을 상기할 수 있는 질문이나 활동이 주어졌을 때	사진 속 여행지의 이름을 찾은 후, 어느 나라에 있는지 짝과 이야기 해 봅시다.
	참여 유도하기 (engaging)	주어진 내용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관련 주제를 미리 생각해 봐야 할 때(읽을 내용에 대해)	크리스마스에 무엇을 할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예측하기 (predicting)	어떤 내용이 나올지 미리 생각해 봐야 할 때	영어 듣기 공부를 할 때에는 제목, 주제, 그림 등의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들은 내용을 미리 예측해 보는 습관을 가지세요. 훨씬 더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브레인스토밍 하기 (brainstorming)	어떤 내용이 나올지 또는 어떤 것을 쓸지 단어나 표현 등을 생각해야 할 때	먼저 글을 쓰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생각하고 써 봅시다.

주 로 중 화 동 으 로 제 시	예행연습하기 (rehearsing)	말할 내용을 미리 생각해 보고 준비해야 할 때	말하기 전 연습하기: 전화를 걸기 전에 전화 대화를 미리 연습해 봅시다.
	훑어보기 (scanning)	특정 정보를 찾기 위해 빠르게 훑어보아야 할 때	본문을 빠르게 읽고 그림과 관련된 학생들의 이름을 써 봅시다.
	개인화하기 (personalizing)	주어진 내용을 본인의 경우와 연결하여 생각해야 할 때(읽은 내용에 대해)	새해 첫날 하는 일에 대한 글을 써 봅시다. 자신이 새해 첫날 하는 일에 $\sqrt{\text{표}}$ 해 봅시다.
	선택적 주의 집중하기 (paying selective attention)	주어진 내용을 모두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정보를 찾아야 할 때	영어 문장을 들을 때에는 강세가 있는 낱말들을 들으려고 노력하세요. 강세가 있는 낱말을 들으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속도조절하기 (pacing)	주어진 내용을 얼마나 빨리 읽을 수 있는지 표시하며 읽어야 할 때	1st: Reading Time __min. __sec. 2nd: Reading Time __min. __sec.
	소리 내어 읽기 (reading aloud)	이해를 돕기 위해 주어진 내용을 소리 내어 읽어야 할 때	각 단락 옆에 “Read Aloud”라고 작게 표기
	흉내 내기 (imitating)	똑같이 흉내 내보아야 할 때	강제와 억양을 지켜 말하기: 강제와 억양을 지켜가며 말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말하기 능력도 향상됩니다.
	추측하기 (guessing meaning)	어떤 의미인지 대략적으로 추측해야 할 때	밑줄 친 낱말의 뜻을 짐작해 본 뒤 사전에서 찾아 확인해 봅시다.
	패턴 찾기 (finding patterns)	주어진 표현이나 소리 등의 규칙성을 찾아야 할 때	다음을 듣고 빨간색 철자의 소리에 유의하며 따라 읽어 봅시다.
	주제 찾기 (finding main ideas)	주어진 내용의 주제를 찾아야 할 때	주제가 가장 잘 드러난 부분을 찾아 밑줄을 치세요.
주 로 후 ³ 화 동 으 로 제 시	시각화하기 (visualizing)	주어진 내용을 그림이나 심상으로 정리해야 할 때	다음 그림을 보고 누구의 시에서 떠오르는 이미지인지 연결해 봅시다.
	의미 묶기 (grouping)	이해한 내용을 주제별로 묶어서 정리해야 할 때	다음 도표를 완성하면서 [읽기 텍스트]의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모니터하기 (monitoring, comprehension check-up)	주어진 내용을 잘 파악하였는지 확인해야 할 때	점검표에 $\sqrt{\text{표}}$ 하면서 잘못된 부분에 밑줄을 그어 봅시다.
	감정적 반응하기 (reacting to the text)	주어진 내용에 대해 본인의 감정이 어떤지 정리해야 할 때	How much do you like it? (0-----5)
	요약하기 (summarizing)	읽은 내용을 요약해서 영어로 써야 할 때	과학자에 대한 글을 읽고 분석해 보세요.

1: before, 2: during, 3: after

확장하며 완성된 표준목록을 가지고, 모든 교과서에서 학습전략을 찾아 각

분석 목록(표 3)을 완성하였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교과서마다 연구원 개개인의 분석, 연구원들의 토론, 제1저자와 함께 확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후 학년별 분석이 끝나면,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일관된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시 말해, 1학년 모든 교과서를 분석하고, 2학년 모든 교과서를 분석한 후, 다시 1학년 모든 교과서를 검토함으로써 2학년 교과서에서의 학습전략 확정과 일관되었는지 확인하였으며, 3학년 모든 교과서 분석 후 같은 방법으로 다시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 과정을 거쳐 분석자간 신뢰도는 일치에 가까울 정도로 상당히 높았다.

표 3

영어학습전략 분석 목록

출판사: _____		저자: _____		분석대상 과: _____							
영어학습전략	쪽	듣 기	말 하기	읽 기	쓰 기	어 휘	문 법	전	중	후	지문
배경지식 활성화하기											
참여 유도하기											
예측하기											
브레인스토밍 하기											
예행연습하기											
훑어보기											
개인화하기											
선택적 주의 집중하기											
속도조절하기											
소리 내어 읽기											
흉내 내기											
추측하기											
패턴 찾기											
주제 찾기											
시각화하기											
의미 묶기											
모니터하기											
감정적 반응하기											
요약하기											

교과서마다 완성된 학습전략 분석 목록을 비교하며 각 전략의 제시 현황을 비교하였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교과서에 제시된 전략의 종류와 빈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합산한 전략의 종류와 빈도를 기술검정과 ANOVA(SPSS 11.5)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학년별 전략 교수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세 개 학년 모두 검인정 심사를 통과한 교과서 15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토의

1. 중학교 영어 교과서의 영어학습전략 교수 현황

우리나라 중학교 영어 교과서에서 영어학습전략을 가르치고 있는지 여부와, 가르치고 있다면 어떤 영어학습전략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표 3의 목록으로 총 59종의 교과서를 분석, 확인, 재확인을 거듭하며 알아보았다. 그 결과 표 4에서 보듯이, 분석 대상 모든 교과서는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영어학습전략을 다루고 있었다. 이는 학습전략이 교사가 새롭게 창조해야 할 무언가가 아니라 이미 가르치고 있는 내용의 일부였다는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이다.

표 4
방법별 영어학습전략 교수 현황

영어학습전략	계 (59)	빈도		
		1학년 (25)	2학년 (19)	3학년 (15)
명시적 제시 (이름과 설명)	10	10	0	0
명시적 제시 (설명)	52	30	13	9
암묵적 제시	557	216	140	201
계	619	256	153	210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중학교 영어 교과서에서 찾은 학습전략 총 619개 중 10개의 학습전략만 이름과 함께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52개의 학습전략은 이름은 없지만 상대적으로 명시적인 설명과 함께 제시하고 있으며, 나머지 557개의 전략은 모두 암묵적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명시적인 설명이 많지는 않지만, 1학년 교과서에 주로 제시된 것으로 보아 1학년에게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으로 보인다.

명시적인 영어학습전략으로는 “말하기 전 연습하기, 소재나 주제에 집중하여 듣기” 등으로 이름을 붙인 후 자세한 설명을 해당 활동 옆에 제시한 것과, 이름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영어 듣기 공부를 할 때에는 제목, 주제, 그림, 질문 등의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들은 내용을 미리 예측해 보는 습관을 가지세요. 훨씬 더 잘 들을 수 있습니다”와 같이 설명을 추가한 것, 각 문단의 단어 수와 함께 얼마 동안 읽었는지 속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들 수 있다. 이처럼 이름을 붙이거나 명시적으로 학습전략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매우 드물게 제시되고 있다는 것은 향후 수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학습전략은 이름을 붙이며 교사가 시범을 보이며 명시적으로 가르쳤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암묵적 영어학습전략 교수의 예를 들면, 본문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세계 여러 나라의 인사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표기해서 학생들이 본문 내용과 관련한 배경지식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한 것을 “배경지식 활성화하기”로 분류하였다. 또한 “주어진 글을 참고하여 그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써 봅시다”는 “개인화하기”로, “여러분은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하나요?”는 본문 내용과 관련하여 본인의 경험을 떠올려 흥미를 유발하는 것으로 “참여 유도하기”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암묵적인 제시 방법은 매 과에 비슷한 위치에 제시되어 있어, 학생들이 영어학습 전략으로 인식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있을 수 있으므로, 영어 교사들이 학습전략임을 강조하며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각 영어학습전략이 얼마나 자주 제시되었는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5
전략별 전체 영어학습전략 교수 현황

영어학습전략	계 (59)	빈도		
		1학년 (25)	2학년 (19)	3학년 (15)
배경지식 활성화하기	171	72	51	48
참여 유도하기	169	61	51	57
예측하기	63	26	14	22
브레인스토밍하기	24	7	6	11
예행연습하기	1	1	0	0
훑어보기	13	7	2	4
개인화하기	26	2	3	21
선택적 주의 집중하기	61	28	12	21
속도조절하기	9	9	0	0

소리 내어 읽기	6	6	0	0
흉내 내기	4	4	0	0
추측하기	6	3	0	3
패턴 찾기	23	15	5	3
주제 찾기	3	3	0	0
시각화하기	1	0	1	0
의미 묶기	20	7	3	10
모니터하기	10	2	1	7
감정적 반응하기	8	3	4	1
요약하기	1	0	0	1
계	619	256	153	210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배경지식 활성화하기와 참여 유도하기, 예측하기와 같이 전(before) 활동으로 제시된 영어학습전략이 주를 이루었다. 중(during) 활동에서는 선택적 집중하기와 패턴 찾기가, 후(after) 활동에서는 의미 묶기가 다른 것들에 비해 자주 제시되었다. 총 19종의 학습전략 중 배경지식 활성화하기(171)와 참여 유도하기(169)가 대부분을 이루고 그 외 나머지 학습전략은 거의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흥미로운 결과이다. 자주 제시되지 않는 나머지 학습전략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부분의 학생이 접해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므로, 다른 영어학습전략에 대해 영어 교사들이 추가적으로 명시적 교수를 해야 할 것이다. 전, 중, 후 활동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어휘, 문법으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표 6
기술별 전체 영어학습전략 교수 현황

기술	계 (59)	빈도			
		1학년 (25)	2학년 (19)	3학년 (15)	
듣기	전	40	23	7	10
	중	40	23	0	17
	후	1	1	0	0
말하기	전	24	18	6	0
	중	7	7	0	0
	후	0	0	0	0

읽기	전	393	144	122	127
	중	19	16	3	0
	후	36	14	7	15
쓰기	전	45	3	6	36
	중	2	1	0	1
	후	1	0	1	0
어휘	전	0	0	0	0
	중	7	3	0	4
	후	0	0	0	0
문법	전	0	0	0	0
	중	1	0	1	0
	후	3	3	0	0
계		619	256	153	210

기술별로 살펴본 결과, 읽기전략(전 393, 중 19, 후 36)과 듣기전략(전 40, 중 40, 후 1)이 많았으며, 놀랍게도 어휘전략(전 0, 중 7, 후 0)과 문법전략(전 0, 중 1, 후 3)은 거의 제시되지 않았다. 전통적 영어 교수법에 근거하여 문법과 어휘를 위주로 가르칠 것으로 예상되었던 것과는 달리, 문법전략과 어휘전략이 거의 제시되지 않은 것은 흥미로운 결과이며, 이는 우리나라 영어 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노력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생 수가 많은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특성상 읽기와 듣기가 중심이며, 쓰기와 말하기는 여전히 부족하여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영어학습전략이 제시되는 시기별로 보았을 때, 위에서 전략별로 살펴볼 때 언급하였듯이, 전 활동(읽기 전 393, 쓰기 전 45, 듣기 전 40, 말하기 전 24)이 주를 이루었다. 이는 영어 교과서에서 본 내용을 처리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중 전략)와 이해 또는 표현한 내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후 전략)에 대해서는 거의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중 전략과 후 전략에 대한 정보를 영어 교사에게 제시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2. 학년별 영어학습전략 교수 현황

위에서 표 5와 6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전체적으로 영어학습전략 교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명시적인 전략 교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암묵적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그렇다면 학년별로 영어학습전략 교수

현황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분석한 모든 교과서를 학년별로 비교한 결과, 제시하고 있는 영어학습전략의 종류와 빈도(분석 대상 세 개의 과에서)는 표7과 같다. ANOVA 분석 결과, 학년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사후 검사(post-hoc, Tukey HSD) 결과, 2학년(약 3종류)보다 3학년(약 5종류)에게 유의미하게 많은 종류의 학습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2학년(교과서마다 평균 약 8회)보다 1학년(교과서마다 평균 약 10회)과 3학년(교과서마다 평균 약 14회)에게 유의미하게 자주 제시하고 있었다.

표 7
학년별 영어학습전략 교수 현황: 종류와 빈도

영어 학습 전략	1학년			2학년			3학년			F	Sig.
	수	평균 빈도	표준 편차	수	평균 빈도	표준 편차	수	평균 빈도	표준 편차		
종류	25	4.28	1.49	19	3.32	1.20	15	5.20	1.66	7.15**	.002
빈도	25	10.24	4.47	19	8.05	2.84	15	13.93	4.40	9.15***	.000

* p.<.05, ** p.<.01, *** p.<.001

표 7의 결과는 학년별 모든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학년별로 출판사와 저자가 다른 책들이 있어 차이가 났을 수 있다. 따라서 세 개 학년 모두 검인정 심사를 통과한 교과서 15종을 대상으로 비교한 결과, 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학년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검사(post-hoc, Tukey HSD) 결과, 표7과 유사하게, 2학년(약 3종류, 교과서마다 평균 약 8회)보다 3학년(약 5종류, 교과서마다 평균 약 14회)에게 유의미하게 많은 종류의 학습전략을 자주 제시하고 있었다. 같은 출판사의 같은 저자들인데도 2학년 교과서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학습전략을 자주 제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후속 연구를 통해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표 8
15종 교과서의 학년별 영어학습전략 교수 현황: 종류와 빈도

영어 학습 전략	1학년			2학년			3학년			F	Sig.
	수	평균 빈도	표준 편차	수	평균 빈도	표준 편차	수	평균 빈도	표준 편차		
종류	15	4.67	1.63	15	3.33	1.29	15	5.20	1.66	5.88**	.006
빈도	15	10.73	4.79	15	7.73	2.74	15	13.93	4.40	8.69**	.001

* p.<.05, ** p.<.01, *** p.<.001

각 전략에 대해서 학년별로 제시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 ANOVA로 비교를 해 보았다. 총 19개의 전략 중 참여 유도하기(중1: 2.47, 중2: 2.13, 중3: 3.80, df=2, F=5.01, p=.011), 개인화하기(중1: .13, 중2: .13, 중3: 1.40, df=2, F=10.09,

$p=.000$)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그 외 모든 전략이 세 개 학년에 편차 없이 제시되고 있다는 것으로, 각 학년에게 거의 동일한 영어학습전략 교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중학교 영어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이 주로 연습해야 할 영어학습전략과, 2학년 학생들이 연습해야 할 것, 3학년이 연습해야 할 것은 달라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학년에게 새로운 학습전략을 제시할 때 익숙한 것과 함께 제시하여 감정적, 인지적 부담감을 줄여주는 방법을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V. 영어학습전략 교수 모형 제안

모든 중학교 영어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다행히 모든 교과서에 영어학습전략이 제시되기는 했지만, 적극적으로 영어 교육에 반영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어진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학습전략을 어떻게 활용할지 가르침으로써, 처음에 컸던 교사의 역할이 점점 줄어(O'Malley & Chamot, 1990) 교사가 없이도 적절한 학습전략을 스스로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학습자(Gu, 2003; Rubin, 2005)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영어 교과서에서 자주 다루고 있지 않은 영어학습 전략을 어떻게 교과서 내용과 함께 가르칠 수 있을지 학년별로 교수 모형의 예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전혀 새로운 내용을 교사가 창조해 낼 것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암묵적 방법의 영어학습전략을 어떻게 명시적으로 바꾸어 가르칠 수 있을지를 현재 교과서의 본문을 이용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영어학습전략을 가르칠수록 감소하는 교사의 역할과 증가하는 학습자의 역할 및 익숙한 전략과 함께 새로운 전략을 확장하는 교수 모형을 O'Malley와 Chamot(1990)의 교수 모형을 기초로 그림 1과 같이 제안한다.

다시 말해,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교수 모형은 영어학습전략을 가르칠 계획을 하는 교사들이 참조함으로써, 학년마다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거나 같은 전략을 계속 제시하기보다는, 이전에 배운 전략을 한 두 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에게 편안함을 준 후, 새로운 전략을 한 두 개 추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때 반드시 각 전략에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을 학생들이 주지하도록 한 후, 교사가 시범을 보이고, 학생들 스스로 빈칸에 내용을 채워볼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며 연습하도록 함으로써, 이후에 스스로 전략을 고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 모형에 근거한 학년별 영어학습전략 교수 예는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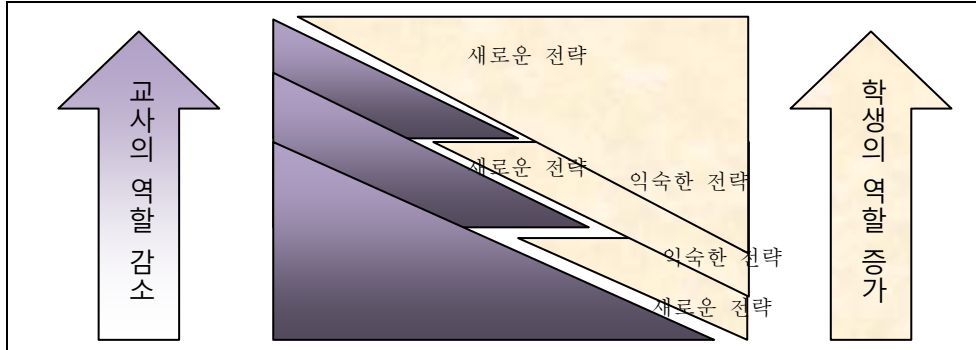


그림 1. 영어학습전략 교수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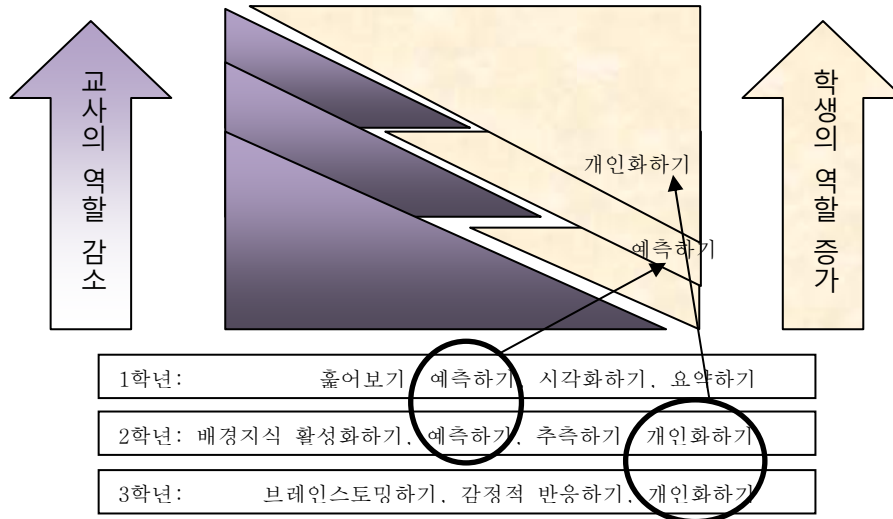


그림 2. 영어학습전략 교수 모형 적용 예.

1학년 학생들을 위해 읽기 전 활동으로, 훑어보기를 통해 반복되는 단어와 그 중 어떤 단어가 주제와 관련이 있을지 생각해 보도록 한 후, 예측하기를 통해 주제를 예측하도록 하였다. 예측한 내용이 실제 읽은 내용과 일치할 경우, 오스벨의 포섭(subsumption; Brown, 2006) 이론에서 설명하듯이 이용에 대한 이해가 빠르고 기억이 용이하므로, 읽은 후 확인하는 연습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읽기 활동으로 시각화하기를 제안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읽은 후 요약하기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부록 1: 금성출판사, 이완기 등, 2008, pp. 82-83 본문 내용에 학습전략 추가).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본문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 내용에 대해 배경지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 후, 1학년 때 연습이 되어 있는 예측하기를 함께 연속 활용하도록 하였다. 이 후 읽기 활동으로 앞뒤 단어를 활용하여

주요 단어의 의미를 추측하도록 하였다. 읽은 내용을 본인의 생각과 연합하여 공고화할 수 있도록 개인화하기를 읽기 후 활동으로 추가하였다(부록 2: 천재교육, 이재영 등, 2009, pp. 98-101 본문 내용에 학습전략 추가).

3학년 학생들에게는 주어진 도식정리표(graphic organizer)를 이용하여 알고 있는 단어를 브레인스토밍한 후, 주제별로 묶을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2학년 때 배운 배경지식 활성화하기를 활용할 수 있는 활동으로, 주어진 주제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단어를 떠올리는 것으로 확장을 하였다. 브레인스토밍한 단어를 소주제별로 묶도록 생각하는 것은 1학년과 2학년 때 배운 예측하기를 확장한 것으로 본문을 읽을 때 본인이 미리 생각해 본 단어들이 본문에서 나오는지 확인하게 되어 읽을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읽는 동안에는 본문에 나오는 의견에 대해 본인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여, 읽기 후 활동에서의 개인화하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 후, 본인의 생각으로 개인화할 수 있도록 글을 쓰는 활동을 추가하였다(부록 3: 좋은책신사고, 장경렬 등, 2010, pp. 16-19 본문 내용에 학습전략 추가).

VI.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학생들을 자기 주도적인 학습자로 양성하는데 필수적인 학습전략을 영어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있는지 여부와 어떤 학습전략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알아본 후, 효과적인 영어학습전략 교수 모형을 제시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중학교의 모든 영어 교과서 총 59종(1학년 25종, 2학년 19종, 3학년 15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원 세 명과 함께 총 19종의 영어학습전략 표준목록을 완성한 후, 각 교과서의 세 과를 선정하여(교과서별로 모든 과가 비슷한 구조를 이룸) 영어학습전략 교수 현황을 분석하였다.

총 619회의 영어학습전략 중 10회의 전략만이 이름과 함께 명시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52회의 전략은 이름은 없지만 명확한 설명으로 학생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고, 나머지 557회의 전략은 암묵적으로 제시되고 있었다. 이는 논란이 되고는 있지만 명시적 전략 교수의 효용성을 강조한 대다수의 연구(Rubin, et al., 2007)에 기초하여, 좀 더 명시적으로 영어학습전략을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교과서에서는 암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영어 교사가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을 주목하게 하여 영어학습전략에 대한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학년별로는 2학년 교과서에서 영어학습전략의 종류와 빈도가 1학년과 3학년보다 적게 제시되고 있어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참여 유도하기와 개인화하기 이외에는 학년별 제시 차이가 없는 것은,

1학년에서 배울 학습전략과 2학년, 3학년에서 배울 학습전략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므로, 학년별로 다르게 제시할 학습전략 목록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예상과 달리 문법전략과 어휘전략은 거의 없었고, 제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영어학습전략이 읽기전략과 듣기전략이었다. 이는 여전히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기본이 읽기와 듣기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쓰기 및 말하기 교육을 더욱 권장해야 할 것이다. 읽기전략과 듣기전략 중에서도 전 활동인 배경지식 활성화하기와 참여 유도하기가 대부분이며 나머지 17종의 전략은 자주 제시되고 있지 않았다. 중 활동과 후 활동에서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다른 영어학습전략의 사용 방법도 명시적으로 제시하여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의 저자들은 전, 중, 후 활동에 쓰일 수 있는 영어학습전략 교수 모형을 학년별로 연계성 있도록 제시하였다. 익숙한 전략과 함께 새로운 전략을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수 모형의 제시로 인해 현장 교사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예를 통해 현재의 자료를 수정, 보완하는 방법을 보여줌으로써, 교사들에게 현실성 있는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 외에 더 많은 교수 방법을 보여줄 필요가 있으며, 제시한 모형을 활용하여 실제 가르쳤을 경우의 효과, 교사와 학생들의 반응 등에 대한 후속 연구도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저자들이 수 차례 토론을 통해 영어학습전략을 찾아내고 비교 분석하였지만, 각 교과서 저자들의 의도와 다르게 파악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각 교과서에서 세 과만 추출하여 분석하였으므로, 다른 과에 제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영어학습전략이 배제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 다시 한번 영어학습전략 교수 현황을 비교할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2008). *외국어과 교육과정(I)* (제2008-160호, 2008. 12. 26).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김정렬, 천윤희. (2008). 코퍼스 언어학적 분석을 통한 초·중등 영어 교과서의 연계성 연구: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교과서를 중심으로. *영어교육*, 63(2), 361-394.
- 나경희, 송희심. (2010).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의거한 고등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의 읽기 활동 분석. *Foreign Languages Education*, 17(2), 145-173.
- 안석배. (2010). *한국 15세 학생들, 읽기·수학 1위, 과학 3위*. 월드와이드웹: <http://blog.chosun.com/blog.log.view.screen?blogId=49831&logId=5147113> 에서 2010년 12월 9일에 검색했음.

- 이완기, 김성연, 이충현, 이석재, 이정란, 윤지희, Caldwell, R. T. (2008). *Middle School English 1*. 서울: 금성출판사.
- 이소영. (2009). 학습활동책에 대한 학생들과 교사들의 인식 및 활용. *영어교육연구*, 21(4), 219-240.
- 이재영, 서성기, 문안나, 배태일, 김신혜, 최아정, Keller, D. R. (2009). *Middle School English 2*. 서울: 천재교육.
- 이정환. (2009). 공부 효율/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월드와이드웹: <http://blog.naver.com/audi600629/10071325540>에서 2010년 12월 9일에 검색했음.
- 장경렬, 이성원, Guilloteaux, M. J., 윤현숙, 최재호. (2010). *Middle School English 3*. 서울: 좋은책신사고.
- 전문기, 임인재. (2009). 코메트릭스(Coh-Metrix)를 이용한 중학교 1학년 개정 영어 교과서의 코퍼스 언어학적 비교 분석. *영어교육연구*, 21(4), 265-292.
- 최숙현, 이희경 (2010). 고등학교 영어 학습활동책 수준별 과업의 난이도 분석. *영어교육*, 26(2), 257-277.
- 한국학습클리닉센터. (2007). *공두박질치는 대한민국 자기주도학습능력*. 월드와이드웹: <http://isangdam.org/bbs/view.php?id=pds&no=93>에서 2010년 12월 9일에 검색.
- Anderson, N. J. (2005). L2 strategy research. In E. Hinkel (Ed.), *Handbook in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 (pp. 757-772). Mahwah, NJ: Erlbaum.
- Brown, H. D. (2006).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5th ed.). White Plains, NY: Longman.
- Carrier, K. A. (2003). Improving high school English language learners' second language listening through strategy instruction. *Bilingual Research Journal*, 27, 383-408.
- Chamot, A. U., & O'Malley, J. M. (1994). *The CALLA handbook: Implementing the cognitive academic language learning approach*. Reading, MA: Addison-Wesley.
- Cohen, A. D. (2007). Coming to terms with language learner strategies: Surveying the experts. In A. D. Cohen & E. Macaro (Eds.), *Language learner strategies* (pp. 29-46).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ohen, A. D. (1998). *Strategies in learning and using a second language*. Reading, MA: Addison Wesley Longman.
- Cohen, A. D., & Macaro, E. (2007). *Language learner strateg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Dadour, E. S., & Robbins, J. (1996). University-level studies using strategy instruction to improve speaking ability in Egypt and Japan. In R. L. Oxford (Ed.),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around the world: Cross-cultural perspectives* (pp. 157-167). Honolulu, HI: University of Hawaii Press.
- Fountas, I., & Pinnell, G. (1996). *Guided reading: Good first teaching for all children*. Portsmouth, NH: Heinemann.

- Graham, S., & Harris, K. R. (2000). The role of self-regulation and transcription skills in writing and writing development. *Educational Psychologist*, 35, 3-12.
- Griffiths, C. (2008). *The good language learner: Lessons from researc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riffiths, C. (2003). Patterns of language learning strategy use. *System*, 31 (3), 367-383.
- Gu, P. Y. (2003). Find brush and freehand: The vocabulary-learning art of two successful Chinese EFL learners. *TESOL Quarterly*, 37 (1), 73-104.
- Ikeda, M., & Takeuchi, O. (2003). Can strategy instruction help EFL learners to improve their reading ability?: An empirical study. *JACET Bulletin*, 37, 49-60.
- Lee, Kyoung Rang. (2010). Improving self-efficacy and reading performance through individualized reading strategy instruction. *Modern English Education*, 11(3), 40-54.
- Lee, Kyoung Rang. (2007). *Strategy awareness-raising for success: Reading strategy instruction in the EFL contex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ryland at College Park.
- Lee, K. R., & Oxford, R. L. (2008). Understanding EFL learners' strategy use and strategy awareness. *Asian EFL Journal*, 10 (1), 7-32.
- Macaro, E. (2001). *Learning strategies in foreign and second language classrooms*. London: Continuum.
- Nyikos, M. (1991). Prioritizing student learning: A guide for teachers. In L. Strasheim (Ed.), *Focus on the foreign language learner: Priorities and strategies* (pp. 25-39). Lincolnwood, IL: National Textbook.
- O'Malley, J. M., & Chamot, A. U. (1990). *Learning strateg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xford, R. L. (1990).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What every teacher should know*. Boston: Heinle & Heinle.
- Oxford, R. L., & Leaver, B. L. (1996). A synthesis of strategy instruction for foreign language learners. In R. L. Oxford (Ed.),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around the world: Cross-cultural perspectives* (pp. 227-246). Honolulu, HI: University of Hawaii Press.
- Oxford, R. L., Cho, Y., Leung, S., & Kim, H. (2004). Effect of the presence and difficulty of task on strategy use: An exploratory study.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42(1), 1-47.
- Palincsar, A. S., & Perry, N. E. (1995). Developmental, cognitive, and sociocultural perspectives on assessing and instructing reading. *School Psychology Review*, 24(3), 331-344.
- Rubin, J. (1975). What the 'good language learner' can teach us. *TESOL Quarterly*, 9(1), 41-51.

- Rubin, J. (2005). The expert language learner: A review of good language learner studies and learner strategies. In K. Johnson (Ed.), *Expertise in second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pp. 37-63).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 Rubin, J., Chamot, A. U., Harris, V., & Anderson, N. J. (2007). Intervening in the use of strategies. In A. D. Cohen & E. Macaro (Eds.), *Language learner strategies* (pp. 141-160).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Vandergrift, L. (2003). Orchestrating strategy use: Toward a model of the skilled second language listener. *Language Learning*, 53 (3), 463-496.
- Williams, J. P. (1993). Comprehension of students with and without learning disabilities: Identification of narrative themes and idiosyncratic text representa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5, 631-641.

부록 1

중학교 1학년 영어학습전략 교수 모형 예

Before you read

(훑어보기)

A. 다음 지문을 빨리 읽고 두 차례 이상 반복되는 단어들을 찾아 써 봅시다. 이 중에서 어떤 단어가 주제와 관련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예측하기)

B. 다음 단어들을 살펴본 후 주제를 예측해봅시다. 지문을 읽은 후 예측한 내용과 일치했는지 확인해봅시다.

예측한 내용	읽은 후 확인
	O X

Read and Thi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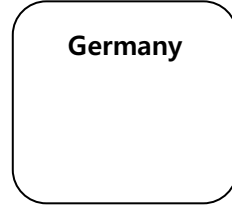
(시각화하기)

단락별로 본문을 읽으면서 주어진 첫 단락의 예를 참고하여 어떤 그림이 연상되는지 네모 안에 그려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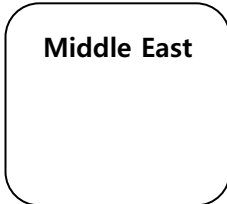
Dining Etiquette (이완기 등, 2008, pp. 82-83)



Hi, my name is Minsu. I live in Korea. I'm taking a trip to Germany and the Middle East with my family this summer. But I don't know anything about their dining cultures. Please help me.



Different cultures have different dining etiquette. In your country, for example, an old person eats first. But in Germany, the host gives a signal, and then everyone eats together.



In Germany, people use forks in their left hand. But in the Middle East, people eat with their right hand. In Germany, you should eat all the food on your plate. But in the Middle East, leave a little food on your plate. Or your host will put more on your plate.

There is a famous saying, "When in Rome, do as the Romans do." So before you go to another country, you should read about their dining etiquette.

After you read

(요약하기)

위에서 그린 그림과 다음 주어진 단어들을 사용하여 본문을 요약해봅시다.

country	different	culture	dining etiquette
---------	-----------	---------	------------------

부록 2

중학교 2학년 영어학습전략 교수 모형 예

Before you read

(배경지식 활성화하기)

A. 다음 사진 속 인물들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짝과 함께 이야기해봅시다.

**(예측하기)**

B. 짝과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문의 주제를 예측해봅시다. 지문을 읽은 후 예측한 내용과 일치했는지 확인해봅시다.

예측한 내용	읽은 후 확인
	O X

Read and Think

(추측하기)

본문에 나온 굵은 글씨의 단어 뜻을 추측하며 읽어봅시다. 주어진 단어의 앞뒤 단어를 다시 읽어 보며 뜻을 추측해봅시다.

Heroes in my heart (이재영 등, 2009, pp. 98-101)

Christopher Reeve is my **hero**. He was an actor who played Superman in the movies. He was not only an actor. He was a true **superman**. He was in an accident and became disabled. But he showed “super” will power after the accident. He helped many other **disabled** people until he died.

My teacher, Ms. Choi, loves every student in our class. Last week, she gave every student a different **present** with a letter. In my letter, she told me that my drawings were really **touching**. I’m happy to have a good teacher like her.

Insu is my **classmate**. He often goes to a **nursing** home which is very far from his house. He helps old people there. It is not an easy job. But he never says that it is difficult. He always smiles. Isn’t he a great person?

I **admire** Yi Sunsin. He was an **admiral** who **saved** our country from danger. He was brave and smart. He had only a small number of soldiers and ships, but he won every battle. He loved his men and his country, and they also loved him.

My mother is from Vietnam. Her name is Nguyen Thi My ha. At first, she had a **hard** time here, but she worked very **hard**. She learned about Korean culture and studied Korean until she could speak it very well. She likes to make **delicious** Vietnamese and Korean food for the people around her. Now everyone loves her. She is my **hero**.

After you read

(개인화하기)

여러분이 본받고 싶은 영웅은 누구입니까? 앞에서 배운 단어를 활용하여 본인의 영웅에 대해 써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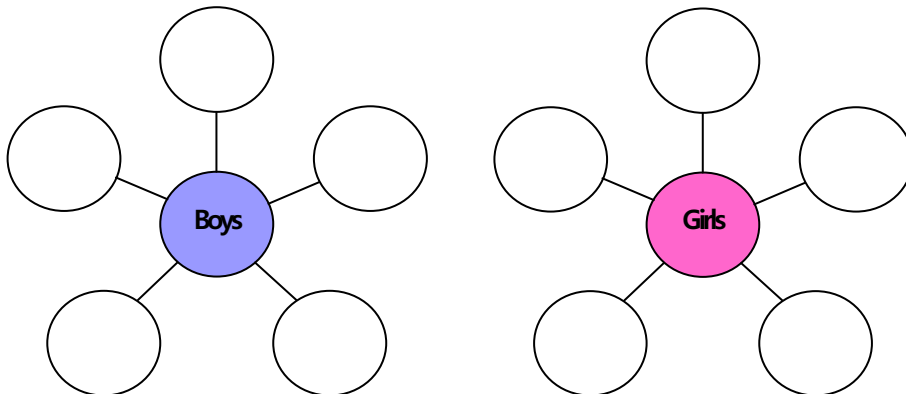
부록 3

중학교 3학년 영어학습전략 교수 모형 예

Before you read

(브레인스토밍하기)

학교 생활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점에 대해 생각해본 후, 생각나는 단어나 표현을 써봅시다. 소주제별로 묶일 수 있는지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Read and Think

(감정적 반응하기)

본문에 등장하는 각각의 질문과 해당 인터뷰 내용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드는지 빈칸에 써봅시다.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boys and girls? (장경렬 등, 2010, pp. 16-19)

A reporter from the school newspaper interviewed Sarah and Chris. They talked about differences between boys and girls.

What are boys and girls like at school?

Sarah: Usually, boys are not as hardworking as girls. Boys are also noisier than girls when they are in groups.

Chris: I think girls are as loud as boys. Girls are so talkative! Do girls work harder than boys? Well, boys and girls are both competitive in our school. But girls are often better students.

My answer:

Are boys and girls good at different things in school?

Sarah: Some people think that boys are better at math and science than girls. But it's not true. Girls are as good as boys in those subjects.

Chris: I heard that boys are not as good at languages as girls. But I don't believe it. In my class, boys do as well as girls in languages.

My answer:

At school, who gossips more, boys or girls?

Sarah: I think both of them like to gossip.

Chris: But they gossip about different things. Boys gossip as much as girls. Some boys at my school gossip all the time.

My answer:

Are girls more sensitive than boys?

Sarah: No, I don't think so. I think boys are as sensitive as girls, but they don't like to show their feelings. They only pretend to be tough. Maybe it's because their parents told them, "Boys don't cry."

Chris: I know some very sensitive boys who cry, and some girls who never cry.

My answer:

Who is more worried about their appearance, boys and girls?

Sarah: Girls, usually. But it depends. Some boys care as much as girls do about the way they look, and some girls don't care at all.

Chris: I think girls are a lot more worried than boys about their looks. They often think they're too fat and go on crazy diets. That's not good for their health. Boys are different. They're worried about looking stupid.

My answer:

Do you behave in the same with boys as you do with girls?

Sarah: Yes, I act in the same way, but I talk about different things. With girls, I chat about fashion, pop stars, and stuff like that. With boys, I talk about movies, school, or music.

Chris: I talk about the same things with both boys and girls. However, I probably behave more

gently with girls.

My answer: _____

After you read

(개인화하기)

본문에서 대답한 자신의 생각을 바탕으로 남녀의 차이점에 대하여 글로 완성하여 봅시다.

이경량
세종대학교 영어영문학과
143-747 서울 광진구 군자동 98
Tel: (02) 3408-3118
Email: krlee@sejong.ac.kr

김수연
세종대학교 영어영문학과
143-747 서울 광진구 군자동 98
Email: ashleykim1211@gmail.com

김슬기
세종대학교 영어영문학과
143-747 서울 광진구 군자동 98
Email: latte0623@naver.com

이윤정
세종대학교 영어영문학과
143-747 서울 광진구 군자동 98
Email: dotuk-a@nate.com

Received 15 December 2010

Revised 31 January 2011

Accepted 8 February 2011